

# 통신비 절감 vs 부담 가중... 단통법 '온도차'

가계통신비 절감과 불법 보조금 근절을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이해관계자의 입김에 따라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이 법은 시행 후에도 찬반양론이 극단으로 갈리며 연일 이동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일단 정부와 시장 일각에서는 애초 우려와 달리 단통법이 무난하게 시장에 정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이동서비스 평균 가입요금은 3만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4만5155원) 대비 18.7% 하락했다.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66.1%에서 90%로 커진 반면에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0.1%로 하락했다는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으로 요금대별 단말기 보조금 격차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이 실용적인 이동서비스 소비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자 무작정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용 패턴

## 시행 6개월 평가

이통사 "가입비 없애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30% 늘어"

소비자 "단말기 출고가 요지부동·보조금은 하향 평준화"

에 맞는 요금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조장했던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이 37.6%(2만1972건)에서 16.4%(8831건)로 내려간 것도 정부가 주목하는 통계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단통법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가계통신비를 어느 정도 끌어내렸거나 최소한 상승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고 자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냉엄하다. 단통법이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단통법 시행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 대신 품질·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법 시행 초기에는 이런 전망이 들어맞는 듯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11월 가입비와 위약금을 폐지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춘 신규 요금제를 내놓는 등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소비자가 감응할 만한 획기적인 서비스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초기 이통 3사가 선보인 소비자 혜택이 정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깜짝쇼'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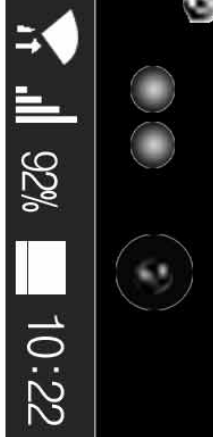
단말기 구입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가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면이 제기됐고

보조금도 시간이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재개됐다. 지난해 11월 초 아이폰6 대란이 터진 데 이어 올 1월에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 주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보조금이 뿌려졌다.

최근의 시장 과열 경향을 보면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기보다 유통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높여 간접적으로 불법을 조장·방조하는 모습이 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직된 규제 행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단통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우회 보조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잡아 소비자 혜택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소비자 혜택보다는 법의 권위와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잣대로 사안을 바라본 측면이 있다"며 "단통법이 소비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규제 기관부터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삼성 갤럭시S6·S6 엣지 80만원·90만원대 예약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S6 엣지를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선점 경쟁이 접화됐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온라인 공식 판매사이트(www.tworlddirect.com)와 전국 공식 대리점에서 예약가입에 들어갔다. 온라인 신청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신청 고객은 8~9일 이틀간 단말기를 배송받게 되며 10일부터 자동 개통된다.

KT도 1~9일 온라인 판매채널(shop.olleh.com)과 전국 옐레 매장에서 예약가입을 진행한다. KT는 예약가입 후 13일까지 개통하는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삼성 정품 무선충전패드와 단말기 분실·파손 보상 프로그램인 '올레폰 안심플랜 스페셜'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한다.

LG유플러스 KT와 같은 기간 예약가입을 진행하며, 예약 고객 전원에게 삼성 정품 무선충전 패드를 제공한다. 또 체험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추천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갤럭시S6·S6 엣지 등을 증정한다. 한편 갤럭시 S6·S6 엣지는 각각 80만원대와 90만원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스마트 폰 카메라 렌즈 쪽 들어간다

美 하버드대 연구팀 개발...상용화는 5년 이후에

스마트폰의 본체보다 카메라 렌즈가 두꺼워 카메라 부분만 툭 튀어나온 이른바 '카툰'을 없애는 기술이 등장했다.

지난 3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공학융합과학대학(SEAS) 연구팀은 렌즈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새 기술은 평평한 유리 표면에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실리콘 안테나를 씌운 메타표면(metasurface) 렌즈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렌즈를 이용하면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정확히 입사광을 굴절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두께를 가진 렌즈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했기 때문에 카메라의 두께가 스마트폰보다 두꺼웠다. 예컨대 아이폰6의 경우에도 사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5개의 렌즈를 겹쳐 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카툰'이 생겨났다.



연구책임자(PI)인 페데리코 카파소 교수는 "전통적인 광학체계에서는 여러 개의 두꺼운 렌즈를 이용해야만 색보정과 같이 복잡한 효과를 줄 수 있었지만, (신기술을 이용하면) 매우 얇고 작은 기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 기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두께의 스마트폰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다만 이 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제품 상용화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금주의 추천앱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는 카카오택시가 첫 선을 보인다. 우버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국내시장에 다음카카오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오늘은 모바일 택시서비스 앱을 소개한다.



**카카오택시/제작: 다음카카오/아이폰, 안드로이드**  
다음카카오는 지난 1월 기사용 앱을 출시한 데 이어 승객용 앱을 출시한다. 승객이 호출하면 최적 경로를 찾아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택시에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안심번호·승하차 내용 전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안심구게에 초점을 맞췄다.



**TMAP 택시/제작: SK플래닛 /안드로이드, 아이폰**  
인기 네비게이션 앱인 TMAP을 활용한 TMAP 택시는 기본 콜택시 기능과 함께 실시간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내달 출시예정인 승객용 앱에는 택시호출 외에 요금계산, 승하차내역, 휴대폰 분실 방지 기능이 제공된다.



**리모택시/제작: 리모택시/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내시장에 일찌감치 자리잡은 리모택시는 승객이 원하는 택시를 호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탑승시마다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한 최근 20년 이상 경력의 무사고 운전기사를 배치하는 프리미엄 택시서비스 '리모로얄'도 선보였다.

DESIGN ZOO'S 제공: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 신축 원룸 매매

**관심물건**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쌍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62)527-76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올수리**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 1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 2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 3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2천
- 4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8백 매매가 20억
- 5 수원지구 모이말가길 3층 88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 6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10-6670-9800

### 수완지구 사무실 임대 매매

수완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1 영신중, 교고 앞, 영강 초교 앞
- 2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3 대지 210평 (1층 6칸)
- 4 건물(2층2칸), 학원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1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5백
- 2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평가 6억6천, 최자가 3억6천
- 3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90㎡)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5백
- 4 남구 노대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4천
- 5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1 북구 두암동 (3층상가겸 주택) (198㎡, 건물 512㎡)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 2 광신구 도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자가 3억7천
- 3 서구 생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자가 3억7천
- 4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자가 2억 1천
- 5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2억9천
- 6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자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 북구 일곡동 (1층 패자점)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자가 28억
- 2 북구 배곡동 (1층 조림상가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1억
- 3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9억6천, 최자가 3억9천
- 4 장성 삼계면 (2층건물) (토 1088㎡, 건물 631㎡) 감평가 2억5천, 최자가 9천1백
- 5 담양군 금성면 (3층편선건물) (토 3030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자가 9억9천
- 6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예식장)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자가 85억
- 7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1억3천

010-6670-9800 / 062)382-5500

### 경매학원 (기본+실전)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개발까지)

- 1 오전반 (화요일) 9시30분 ~ 12시
- 2 오후반 (화요일) 7시 ~ 9시
- 3 주말반 (특별반) => 상담가능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길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학생 지원 등

**엔피엘교육 (부실채권)**  
2개월 총8강

매주 월요일 개강

- 1 오전 (월요일) 10시 ~ 12시 30분까지
- 2 오후 (월요일) 7시 ~ 9시까지
- 3 집중 엔피엘교육 (기본부터 실전까지)

※ 경매 실전 위주반 모집(기본 + 실전) 1년

010-6832-9700  
010-2699-5300